

팔복예술공장 리모델링 시행 전 공간 활용성 모색

전주 팔복동 제1산단 내에 조성되고 있는 팔복예술공장(옛 쏘텍스 카세트아트 공장)에서 무료대관 전시가 열린다.

이는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 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비일상의 발견'이란 주제로 펼쳐졌던 전시 이래 예술인 및 방문객들의 대관·전시요구를 수렴받은 물론 오는 5월 예정된 팔복예술공장 리모델링 사업 시행 전에 공간의 활용성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됐다.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팔복예술공장 무료대관 전시' 행사를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갖는다.

전시는 5개 팀이 펼치며, 기간·전시 유형별로 3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3월 11일~3월 19일까지 1층 전시공간에서 열리는 오픈링 전시 'Dark

▶전주문화재단 '무료대관' 전시 내달 11일부터

5개 팀·유형별 3그룹 나눠서 진행

Matter'는 4개국 9명의 외국인 작가들로 구성된 Jeonju Artists Coalition가 연다. Anije Di Santo(대표)는 팔복예술공장의 장소·역사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1층은 전시 공간으로, 2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려 관람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그룹은 수채화·그라비티·사진 등 다양한 전시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3월 23일~4월 7일에는 개인 3팀의 회화 및 설치 전시가 이어진다.

박철희 작가는 '만개'전에서 인간의 황금기를 만개라는 언어로 표현한 설치미술을, 정영진 작가는 '무의미의 의미' 회화 및 설치 전을 펼쳐 보인다. 정 작가는 낙서를 통해

예술행위를 표하고자 했다. 팔복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박두리 작가는 '소외된 감정'전에서 유년의 기억들이 내면 끝자락에서 현재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급력을 평면회화 작품으로 표현한다.

'사진연구 붐'의 '길 위에 서다' 사진전도 전시의 대미를 장식한다.

20명의 사진작가로 구성된 사진연구 붐은 사진을 통한 설치미술을 구현하고자 한다. 전시는 4월 11일~4월 30일.

전시기간 중에 관람객들은 주민 도슨트(해설사)에게서 작품에 대한 이해 및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박두리 '소외된 감정' 감성



▶ 정영진 '무의미의 의미' 회화

사랑·정체성 찾아 소년에서 청년으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문라이트' 내일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사·4층)은 관객 설문조사 결과 반영작 중, 최다 득표를 기록한 <문라이트>를 23일 상영한다.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영화는 한 흑인 아이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겪어온 푸르도록 치명적인 사랑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기를 담았다.

'벨랑콜라의 묘약' 이후 8년 만의 신작을 연출한 배리 젠킨스 감독의 작품으로 각본가 타넬 앨빈 맥카니가 연극 학교에서 과제로 제출했던 '날빛 아래 흑인 소년들은 파랗게 보인다'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배리 젠킨스 감독은 3장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각색,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세 시기를 동일하게 배분하여 '리트-사이클-블랙'의 삶을 그린다.

제74회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문라이트는 지금까지 150여 관객을 거머쥐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오는 2월말에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감독상 등 주요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라라랜드'와 함께 작품상 수상이 가장 유력한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후원회원 4,000원.

*문의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231-3377.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원조 '국민연극' 라이어의 세번째 작품 군산 상륙

24일부터 2일간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서

원조 '국민연극' 라이어의 마지막 시리즈인 '라이어 3탄-튀어'가 군산에 온다. 오는 24일과 25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무대에 오르는 이번 공연은 '국민연극'이라는 명성답게 시리즈 중 가장 진한 웃음과 독특한 캐릭터가 눈에 띈다.

국민연극 '라이어 시리즈'는 영국의 극작가 겸 연출가 레이 쿠니(Ray Cooney)의 대표작으로, 짜임새 있는 구성과 해학을 담은 강렬한 웃음코드로 관객들에게 유쾌한 시간을 선사하며 오랜 시간동안 끊임 없이 사랑 받아온 스테디셀러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99년 초연을 시작해 지

금까지 1, 2, 3탄 시리즈 모두를 흥행으로 연결시키며 서울 대학로와 강남 등지에서 '오픈런'으로 진행 중인 작품이다.

연극 '라이어 3탄-튀어'는 소심한 은행원 '영호'에게 갑자기 100억이라는 큰돈이 생기면서, 상황을 잠시 무마하려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며 발생하는 코믹한 에피소드를 다룬 연극이다.

티켓금액은 R석 2만원, S석 1만 5,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여성친화 환경개선 참여기업 선정

전북광역시·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는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사업'의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여성친화 기업들에 대해 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설치를 지원한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 환경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목표로 여성휴게실·화장실·수유실 개보수 및 여성휴게실·작업장 내 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개선사업 대상자로는 도당식품영농조합법인(순창군), 농업회사법인(유)떡두개비(부안군), 무지개영농조합법인(임실군)과 전주시 소재 제논전장(주), 가이테크(주)전주제과, 장한실업 등 총 7개 중소기업이 선정됐다. /정해은 기자



뮤지컬 '안나의 크리스마스' 26일 무주예체문화관서

링크학교 학생들 재능기부 열연

무주군민을 위한 봄맞이 감동 뮤지컬 '안나의 크리스마스(관람료 무료)'가 평생교육시설 청주링크학교(총북 청주교육지원청 등록)가 주관하는 가운데 2월 26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무주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안나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작은 소동을 기반으로 가족들 서로가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표현한 뮤지컬로, 링크학교 학생들과 청주지역뮤지컬 배우 등 1백 명이 재능

기부로 열연을 할 예정이다. 링크학교 관계자는 "노래와 춤, 음악이 살아 움직이는 뮤지컬을 통해 재능을 맞이하는 무주군민들에게 큰 힘을 드리고 싶다"며 "아들, 손자, 며느리, 이웃들과 손잡고 나오셔서 감동 넘치는 뮤지컬 한 편 감상해보시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청주링크학교교장은 "평생교육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16년 10월 설립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민영 신임 익산시립합창단 지휘자 위촉장 수여

익산시는 21일 익산시립합창단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인 이민영(56)씨를 신임지휘자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익산시청 시장실에서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이민영 지휘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

이민영 지휘자는 한양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음악석사학위, 피드먼트 대학교 음악대학 지휘전공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완주군, 전북 투어패스 특별할인가맹점 확대

완주군이 전북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해 특별할인가맹점을 200개소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전북 투어패스 사업은 전북도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전주시,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거쳐 지난 2월 15일부터 전북 전역으로 확대 본격 실시하고 있다. 군은 시범사업 당시 특별할인가맹점이 14개소에 불과했으나, 현재 5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군은 특히 앞으로 특별할인가맹점을 200개소 이상으로 늘려, 전북 투어패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내의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군은 21일 전북 투어패스 특별할인가맹점(57개소)을 대상으로 투어패스 소지 관광객 할인혜택 및 관광객 응대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어패스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 투어패스와 연계해 완주군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라며 "특별할인가맹점에서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22일>



▶쥐띠

48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
60년생: 큰 욕심은 불리하니 작은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72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8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하라.



▶소띠

49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잦아진다.
61년생: 자기의 주장을 관철 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이 비춰지니 주의하라.
73년생: 손윗사람과 함께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85년생: 이성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발생하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동기간과의 다툼에 주의하라.
62년생: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상대방과 불화가 예상되니 언쟁은 피하라.
86년생: 외부적으로 움직이면 이익이 생긴다.



▶토끼띠

51년생: 적대적이었던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
63년생: 시비가 잦아 타인과의 관계에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운이다.
75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운이다.
87년생: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운.



▶용띠

52년생: 나를 위한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상황이 되게 만들면 공이 돌아온다.
64년생: 처음에는 불화하나 나중에는 화합한다.
76년생: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운이다.
88년생: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뱀띠

53년생: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65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 나아가야 하는 시기.
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함과 성실함이 더해져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가볍게 던진 말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니 언행에 주의하라.



▶말띠

54년생: 출타할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운이다.
66년생: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불만을 줄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78년생: 사고수와 질병수가 따르니 운전은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9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지출을 삼가라.



▶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은 운.
67년생: 이성으로 인해 오해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언행에 주의해야 하겠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
91년생: 금전운이 약하고 출타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기는 운.



▶원숭이띠

56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
68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진지하라.
80년생: 먼저 베풀면 베풀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고 안에서 작게 움직이면 좋다.
81년생: 기혼자에게 부부불화가 찾아온다.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해야 할 운이다.



▶개띠

46년생: 일찍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오후 3시 넘어서는 운이 불리하다.
58년생: 들어온 만큼 나가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70년생: 큰 성과를 욕심내는 사람은 불리하니 주의하라.
82년생: 운전은 가끔씩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돼지띠

47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59년생: 지나간 일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하는 운이니 센스 있게 넘겨라.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라.
83년생: 빛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